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에 관한 횡단적 비교

김성은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Cross-sectional comparison on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Seong-Eun Kim

Dep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의 횡단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과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93명과 일반대학생 85명, 총 178명을 대상으로, 문용린의 대학생용 인권감수성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chi-square test, ANC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은 정신질환자 사생활권($t=-2.94, p=.004$)과 환경권($t=2.16, p=.034$) 에피소드에서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생에서는 장애우 신체의 자유권($t=2.41, p=.018$) 에피소드에서만 1학년과 4학년 간의 인권감수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간호윤리 관련 교육과정에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 윤리, 인권, 감수성, 융복합

Abstract This cross-sectional study examined the differences of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changes between freshmen and seniors of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using a human rights sensitivity questionnaire developed by Moon answered by 178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from five South Korean universities. A t-test, chi-square test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s between freshmen and seniors in nursing and non-nursing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s in the right to privacy of the psychiatric patients and the environmental rights among nursing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scores in the disabled person's physical liberty in non-nursing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e direction of educational curriculum revision about ethics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Key Words : Nursing, Ethics, Human rights, Sensitivity, Convergence

Received 3 March 2016, Revised 30 March 2016
Accepted 20 April 2016, Published 28 April 2016
Corresponding Author: Seong Eun Kim
(Dep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Email: sekim@woosuk.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존재의 가치와 독립적인 인격의 존중을 의미한다. 인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며 우선적인 권리로[1], 인간의 삶 자체를 뛰어 넘어서 존엄을 누리는 삶,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위해 필요한 주요 개념이다. 1948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세계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천명하였다[2].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인권의 존중을 근본 원리로 하여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인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부터였다. 그 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점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구조에 변화를 불러왔으며 [3], 이러한 상황적 맥락으로 건강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한 사람이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려면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자각하고 해석하는 인권감수성, 어떤 행동이 인권과 관련하여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인권에 대한 판단력,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인권이란 가치를 우선시하는 인권에 대한 동기화, 인권옹호 행동을 끝까지 밀고 나가며 실행하는 인권옹호행동의 네 가지 심리적 과정을 거친다[4]. 그 중 인권감수성은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자각하고 해석하며, 그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이 다른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인권옹호행동의 첫 번째 단계이다[1]. 대개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인권의식의 정도가 높고 인권에 대한 교육이 인권의식 고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한편 간호학은 인본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과학으로 돌봄을 본질로 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기초 권리 중 하나인 건강권을 추구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6]. 이에 간호사는 어느

직업보다 인류와 사회에 대한 봉사과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되며, 대상자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간호학과 간호사에게 있어 인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새로운 일이 아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이며, 간호사는 건강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실무현장에서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 때 인권감수성은 인권옹호행동을 위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인권감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인권옹호행동은 간호교육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전문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자기 이미지와 행동의 일부로 받아들여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게 된다[7].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고취는 간호윤리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되기 이전 단계인 간호대학교육이 인권감수성 향상에 실제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교육과정 안에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인권감수성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정신보건영역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다른 집단에 비해 차별과 편견, 낙인에 노출 위험이 높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간호사를 비롯한 정신보건종사자 혹은 지역주민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의 수준을 파악하고[8,9], 인권감수성 향상 훈련의 효과에 대한 연구[5]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윤리적 가치관과 인권감수성 수준[10],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6]을 파악한 정도로 소수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의 간호윤리교육에서도 주로 윤리적 갈등상황에서의 해결능력배양차원에서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에 치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1,12,13].

이에 본 연구는 전문직사회화의 관점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대학교육과정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차이를 횡단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후 간호대학생의 윤리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인권감수성의 차이는 어떠한지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옹호행동 고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의 동질성 검증을 한다.

둘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차이를 횡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전라북도 소재의 3개 대학교와 충청북도 소재 1개, 충청남도 소재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이며, 자료수집 기간은 2013년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설명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를 기관의 허락을 얻어 교내 및 학과 게시판에 부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일부의 대상자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 후 연구보조원이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동의서에는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연구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았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14]을 이용하여 두 그룹 간 차이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9, 중간 효과크기 (effect size) .5로 한 표본의 크기는 각 그룹 당 86명으로 총 172명이 필요하였으나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2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192가 회부되어 회수율은 83.5%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17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문용린 등[1]이 개발한 대학생용 인권감수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세계인권선언과 유네스코 인권교육 내용 분류표를 확인하여 국내에서 인권침해 사례로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딜레마형식의 에피소드 10가지로 구성되었다. 각 에피소드에 대하여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지 문항은 인권을 옹호하는 문항과 인권감수성과는 관련 없는 다른 가치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때 인권감수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평정이 인권감수성과 관련 없는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문항에 대한 평정보다 높은 반응만 선택하여 그 평정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각 문항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문항당 0점~5점을 받을 수 있고, 각 에피소드 당 세 질문 문항이 있으므로 한 에피소드 당 0점~15점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본 도구는 총점 0점~150점의 분포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0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은 chi-square test와 independent t-test로 검증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는 윤리교육경험 여부를 보정한 ANCOVA로 분석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전체 및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는 윤리교육 경험 여부를 보정한 ANCOVA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여자 87.1%, 남자 12.9%로 나타났으며, 일반대학생의 경우 여자 81.2%, 남자 18.8%였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각각 22.3(±6.64)세와 21.1(±3.51)세였다. 학년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1학년 49.5%, 4학년 50.5%로 나타났고, 일반대학생의 경우 1학년 54.1%, 4학년 45.9%이었다. 종교 유무의 경우 간호대학생은 62.4%, 일반대학생은 57.6%가 종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 학년, 종교 유무에 대한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간호대학생 75.3%, 일반대학생 43.5%가 윤리교육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간호대학생 24.7%, 일반대학생 56.5%가 윤리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66, p<.001$).

<Table 1> Baseline and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Two Groups (N=178)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n=93)	Non-nursing (n=85)	χ^2 or t	p
		n (%) or M±SD	n (%) or M±SD		
Sex	Male	12 (12.9)	16 (18.8)	1.17	.308
	Female	81 (87.1)	69 (81.2)		
Age (yr.)		22.3±6.64	21.1±3.51	1.60	.111
Grades	Freshman	46 (49.5)	46 (54.1)	0.39	.552
	Senior	47 (50.5)	39 (45.9)		
Religion	Yes	58 (62.4)	49 (57.6)	0.41	.543
	No	35 (37.6)	36 (42.4)		
Ethics	Yes	70 (75.3)	37 (43.5)	18.66	<.001
	No	23 (24.7)	48 (56.5)		

3.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간 1학년과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는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1학년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각각 70.80±20.61점, 61.96±24.77점, 4학년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각각 71.04±25.06점, 60.77±28.26점으로 1학년과 4학년 모두에서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Differences in Human Right Sensitivity according to the Grades between the Two Groups (N=178)

Categories	Nursing		Non-nursing		F	p
	n (%)	M±SD	n (%)	M±SD		
Freshman	46 (49.5)	70.8±20.61	46 (54.1)	62.0±24.77	1.29	.259
Senior	47 (50.5)	71.0±25.06	39 (45.9)	60.8±28.26	0.42	.520

3.3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는 <Table 3>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권감수성 점수가 1학년 70.8±20.61점에서 4학년 71.0±25.06점으로 높아졌고, 일반대학생의 경우 인권감수성 점수는 1학년 62.0±24.77점에서 4학년 60.8±28.26점으로 낮아졌으나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Changes of Human Right Sensitivity in the Two Groups (N=178)

Nursing (n=93)			Non-nursing (n=85)		
Freshman (n=46)	Senior (n=47)	F (p)	Freshman (n=46)	Senior (n=39)	F (p)
(0~150)	(0~150)		(0~150)	(0~150)	
M±SD	M±SD		M±SD	M±SD	
70.8±20.61	71.0±25.06	0.24 (.622)	62.0±24.77	60.8±28.26	0.62 (.434)

3.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

<Table 4> Differences in Changes of Human Right Sensitivity by Episodes between the Two Groups (N=178)

Episode	Nursing (n=93)				Non-nursing (n=85)			
	Freshman (n=46)	Senior (n=47)	F	p	Freshman (n=46)	Senior (n=39)	F	p
	(0~15)	(0~15)			(0~15)	(0~15)		
M±SD	M±SD	M±SD	M±SD	M±SD	M±SD			
Episode 1.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of the elderly	8.9±4.31	9.1±4.74	0.02	.896	8.1±4.77	9.1±5.16	0.25	.617
Episode 2. right not to suffer illegal arrest, restriction	6.5±5.10	7.0±5.52	0.07	.798	4.5±5.30	5.6±5.32	1.06	.307
Episode 3. right to education in disabled	8.1±4.57	6.3±6.06	2.62	.109	6.3±6.07	6.3±6.22	0.21	.647
Episode 4. right to labor in migrant workers	10.3±4.90	10.1±5.02	0.12	.726	10.3±4.57	9.0±5.01	4.98	.028
Episode 5. environmental rights	7.0±5.76	4.4±5.55	4.77	.032	6.7±5.12	5.2±6.10	3.62	.061
Episode 6. equal rights	8.0±5.09	8.1±5.09	0.05	.826	7.4±5.92	6.2±4.67	1.31	.256
Episode 7. privacy rights	5.7±5.81	6.0±6.01	0.01	.951	3.8±5.07	5.3±6.02	1.29	.260
Episode 8. right to personal freedom in disabled	7.6±5.73	7.1±6.26	0.98	.324	8.0±4.95	5.1±6.04	6.43	.013
Episode 9. privacy rights in mental illness	7.3±5.73	10.7±5.40	5.74	.019	5.7±5.64	6.7±5.73	0.53	.471
Episode 10. right to freedom from imprisonment	1.5±3.02	2.2±3.83	0.93	.338	1.3±2.41	2.3±3.72	1.79	.185

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는 <Table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권감수성의 에피소드 중 정신질환자 사생활권(F=5.74, p=.019)과 환경권(t=4.77, p=.03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질환자 사생활권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높았고,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대학생에서는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중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F=6.43, p=.013)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F=4.98, p=.02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1학년보다 4학년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사회화과정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변화를 횡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학년과 4학년의 간호 및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교육의 시작이며 기준점인 1학년에서 두 군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이 일반대학생에 비해 인권감수성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교육의 종착점인 4학년에서 각 군 간 인권감수성 수준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두 군 모두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은 70.80점에서 71.04점으로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점수는 61.95점에서 60.77점으로 1학년보다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이는 대학의 간호교육과정이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횡·종단적 선행연구들[15,16,17,18,19]에서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도덕적 판단력이나 윤리교육의 효과가 의미 있게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들[17,20]에서 간호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적 이슈와 딜레마를 경험하는 실무 상황 속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과 윤리원칙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 ‘현실화 효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현실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윤리관련 교과목에서 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 반영의 여부와 학생들의 도덕발달단계 수준, 교육방법의 문제 등을 통계하거나 영향 정도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후 연구 및 고찰이 필요하겠다.

한편,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1학년과 4학년 간 에피소드 별 인권감수성 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간호대

학생의 경우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중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의 인권감수성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5.74, p=.019$), 환경권에 대한 인권감수성은 1학년에 비해 4학년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F=4.77, p=.032$). 반면 일반대학생에서는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중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F=6.43, p=.013$)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F=4.98, p=.028$)에서 인권감수성 점수가 1학년보다 4학년이 통계적으로 더 낮아 두 군 간의 1학년과 4학년 간 인권감수성 점수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은 정신건강의 학과의 진료를 본 진료자 명단 공개 가능 여부를 묻는 사례로, 간호대학생에서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 강화되어 실습 전 정보보호 서약서 작성 등 환자존중 및 기밀보장이 임상실습 시 강조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신병원이나 시설에서는 2008년 정신보건법 제6조 2항(인권교육)이 신설되면서 정신보건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 또는 종사하는 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으며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한층 노력하고 있는 상황적 특성이 정신간호와 관련된 임상실습을 통하여 경험하고 교육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환경권은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여 공장건립을 허가해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두 군 모두에서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용성의 원리를 적용하며 다수의 복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에피소드 별로 대학교육이 완성되는 4학년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은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10.72점)에서 가장 높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나타내었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10.11점), 노인의 행복추구권(9.13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일반대학생은 노인의 행복추구권(9.05점)이 가장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9.00점),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6.69점) 순으로 높아 순위는 다소 다르나 두 군의 인권감수성 수준이 높은 에피소드는 비슷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간호대학생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나타낸 에피소드는 구급으로부터의 자유권(2.15점)이었고, 환경권(4.43점), 사생활권(5.96점)의 순으로 낮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보였으며, 일반대학생에서는 구급으로부터의 자유권(2.26점), 장애인 신체의 자유권(5.13점), 환경권(5.21점) 에피소드 순으로 낮은 인권감수성의 수준을 나타내어 두 군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을 조사한 김성은[11]의 연구에서도 높은 인권감수성 수준을 보인 에피소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노인의 행복추구권, 정신질환자의 사생활권이었고, 구급으로부터의 자유권, 환경권, 사생활권에 대하여 인권감수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간호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한 개인으로 각각의 대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성, 자율성, 자아존중감 및 신체적 안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한 최상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다[10]. 이와 같은 간호철학을 비롯한 가치와 규범은 전문직사회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전문직 집단의 가치와 규범이 개인의 행동과 자아개념으로 내재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21]. 특히, 간호전문직사회화의 변화가 의미 있게 일

어나는 시기는 간호대학 재학 시절로[22], 간호대학 입학 초기부터 인권감수성의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도록 교과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졸업 시까지 정규 간호대학 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을 고안하고 필요한 교육적 방법을 융합하는 등의 다각도의 교육적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23].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록 횡단적 분석으로 1학년이 4학년 대학생으로 성장하며 일련의 간호대학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의 제적을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중대한 변화를 유추하여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간호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융복합적 함의와 인권감수성 증진의 내용이 반영된 간호윤리 관련 교과과

정으므로의 개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국 대학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아니므로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기에 인권감수성의 종단적인 궤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의 종단적 변화를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Y. L. Moon, M. H. Moon, Y. J. Gwak, In: "Developing indicators of psychological scale for human rights sensitivity",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2.
- [2]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aris, 1948.
- [3] J. B. Lim, "Korean society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ublic Law, Vol. 35, No. 2-2, pp. 1-29, 2006.
- [4] J. R. Rest, Morality. In: P. H. Mussen (series ed.) and J. Flavell, E. Markman (vol.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Cognitive Development, 4th ed. New York, NY: Wiley. pp.556 - 629, 1983.
- [5] H. G. Ju, K. J. Lee, H. S. Kim,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program on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oward the mental illness b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2, No.3, pp.169-179, 2013.
- [6] S. W. Hong, J. S. Kim, H. J. Hyun,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1, No.6, pp.260-269, 2011.
- [7] N. S. Ha, J. Choi, "A longitudinal study on professional socializati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8, No.2, pp.73-85, 2011.
- [8] S. Y. Jung,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professionals in the mental hospital",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23, pp.59-87, 2006..
- [9] Y. W. Lee, I. S. Jeong, "Human rights sensitivity to the mentally disabled among community residen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Vol. 38, No. 2, pp.1-11, 2012.
- [10] S. E. Kim, "Ethical valu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8, No.2, pp.117-128, 2015.
- [11] C. H. Kim, S. Y. Jeong.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based on an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n ethical knowledge, class satisfaction,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0, pp.405-414, 2014.
- [12] S. Y. Yun, M. Kim,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2, pp.363-372, 2014.
- [13] S. Y. Park, K. Y.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255-261, 2015.
- [14]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et al.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 [15] Y. S. Kim, J. W. Park, M. A. You, "A longitudinal study on moral judgment development in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3, No.6, pp.820-828, 2003.
- [16] M. A. You, I. J. Kim, S. H. Hong, "A study of moral judgement of nursing students using DIT test",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8, No.2, pp.105-115, 2005.
- [17] M. A. You, "Longitudinal DIT study of the moral judgments of student nurses at one university in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1, No.2, pp.139-152, 2008.
- [18] M. Park, D. Kjervik, J. Crandell, M. H. Oermann,

- “The relationship of ethics education to moral sensitivity and moral reason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19, No.4, pp.568-680, 2012
- [19] M. A. You, “Changes in nursing students’ moral judgment and ways to evaluate the effect of eth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9, No.3, pp.351-360, 2013.
- [20] S. I. Hwang, B. K. Kwon, Y. M. Koo, O. J. Kim, Y. L. Moon, S. H. Hong,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ethics education program”,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1, No.1, pp.59-69, 1998.
- [21] D. du Toit, “A sociological analysis of the extent and influence of professional socialization on the development of nursing identity among nursing students at two universities in Brisbane, Australia”,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1, No.1, pp.164-171, 1995.
- [22] G. T. Shinyashiki, J. A. Mendes, M. A. Trevizan, R. A. Day, “Professional socialization: students becoming nurses”, *Revista Latino-Americana de Enfermagem* Vol.14, No.4, pp.601-607, 2006.
- [23] E. H. Park, H. R. Park, H. S. Kim, “Approaches to convergence curriculum for healthcare-affiliated students with clinical competence assessment program”,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76-86, 2015.

김 성 은(Kim, Seong Eun)



- 2007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우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윤리, 교육
- E-Mail : sekim@woosuk.ar.kr